

1. 수능 문학에 대한 오해

부제:문학이 30분이 넘게 풀어도 틀리는 이유

2.수능 문학에 대한 평가원의 접근법 20분 안에 완벽하게 다 맞추는

- 2-1. 그냥 읽고 풀기, 정서잡고 공감하기는 수능 문학이 아니다.
-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 2-3기출은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것이다.
- 2-4문제풀이 순서는 등급의 순서를 결정한다.

3.현대시 접근법

- 3-1.수능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시험이다.보기문제, 1번선지 2번선지, 내용문제
- 3-2표현상의 특징은 감이 아닌 기준이다.
- 3-3현대시는 누구든 3분안에 풀 수 있다.

4.고전시 접근법

- 4-1 수능은 배경지식으로 인한 유불리를 최소화시킨다. **고전시가에 대한 기본**
- 4-2 고전시가는 한정된 주제성을 강화시킨 시다. **내용문제 전반**

5.현대소설접근법

- 5-1. 소설의 정보량은 상대적이다. **5분vs10분(소설의 본질, 내용문제, 읽기방식**
- 5-2 수능 소설은 정해진 패턴의 연속이다. **ㄱ,ㄴ,ab,AB등 문제유형다루기**
- 5-3 수능 소설의 최적의 패턴

6.고전소설 접근법

- 6-1 결국은 소설이다. 그러나 특이점이 존재한다. **고전소설 특화문제유형 및 근본읽기**



More than 30 Minutes but not perfect

최근 수능 국어 난이도의 상승으로 국어는 수험생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과목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험지 난이도의 상승만이 아닌 현재 국어 강의에 대한 문제도 크다. 일부 강사들은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며 이미지를 떠올리고 공감하고.. 심지어는 본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지도한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방법이다. 물론 이를 통해 근본적인 읽기 능력이 향상되면 점진적으로 상승이 있겠지만 맹목적인 목표와 수능의 본질에 맞지 않는 방식임에 틀림없다. 그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해보려 한다.

주관의 객관화, 평가원의 본질

문학은 본질적으로 작가가 말하고 싶은 생각을 작품의 형식을 빌려 말한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나 영화를 볼 때를 생각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내가 재밌게 본 영화가 평론가의 악평을 받은 영화일 때가 있다. 즉 누군가의 생각은 주관의 영역이며 이를 표현한 문학작품들 또한 주관적인 성향을 띤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수능 시험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논쟁의 여지가 일어나선 안되는 공평한 시험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주관'적인 문학이 수능의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수능 문학의 출발점이다. 주관적인 문학을 평가의 요소로 객관화시키는 것. 그것이 평가원의 첫 발걸음이었다. 문학작품을 보고 무수히 많은 생각들 중 출제자는 단 하나의 기준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보기를 통해 제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작품의 정보를 판단시킨다. 즉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여 주관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감정에 공감하고 정서를 잡고 제목을 유심히 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가? 내가 작품을 보고 느낀 감정과 출제자가 의도한 감정과 생각들이 일치할 확률이 과연 100%에 수렴할까? **학생들이 답을 하기 쉽게 질문을 바꿔보면 '문학 풀이는 감으로 하는 거야.'**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질문 해보길 바란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말할거다. 왜냐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풀기 때문이다. 그 틀을 깨는 것부터 수능 문학의 시작이다. 철저하게 실력과 분석에 기반해 어떤 상황에서도 변수가 없는 풀이를 가르쳐주겠다.

2-1. 그냥 읽고 풀기, 정서잡고 공감하기는 수능 문학이 아니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틀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술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승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망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윌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커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길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나)

서산에 돋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발이 우거졌던고
 ㉣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쾌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B]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친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잡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쾌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2-1. 그냥 읽고 풀기, 정서잡고 공감하기는 수능 문학이 아니다.

EBS해설 : 그렇게 읽으면 틀릴 수밖에 없다.

3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의 '하늘'과 [B]의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A]의 '하늘 삼길 이내 궁을 설마한들 어이하리'는 가난을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를 취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B]의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도 '하느님'이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지, 이를 초월적인 존재를 예찬하는 어조로 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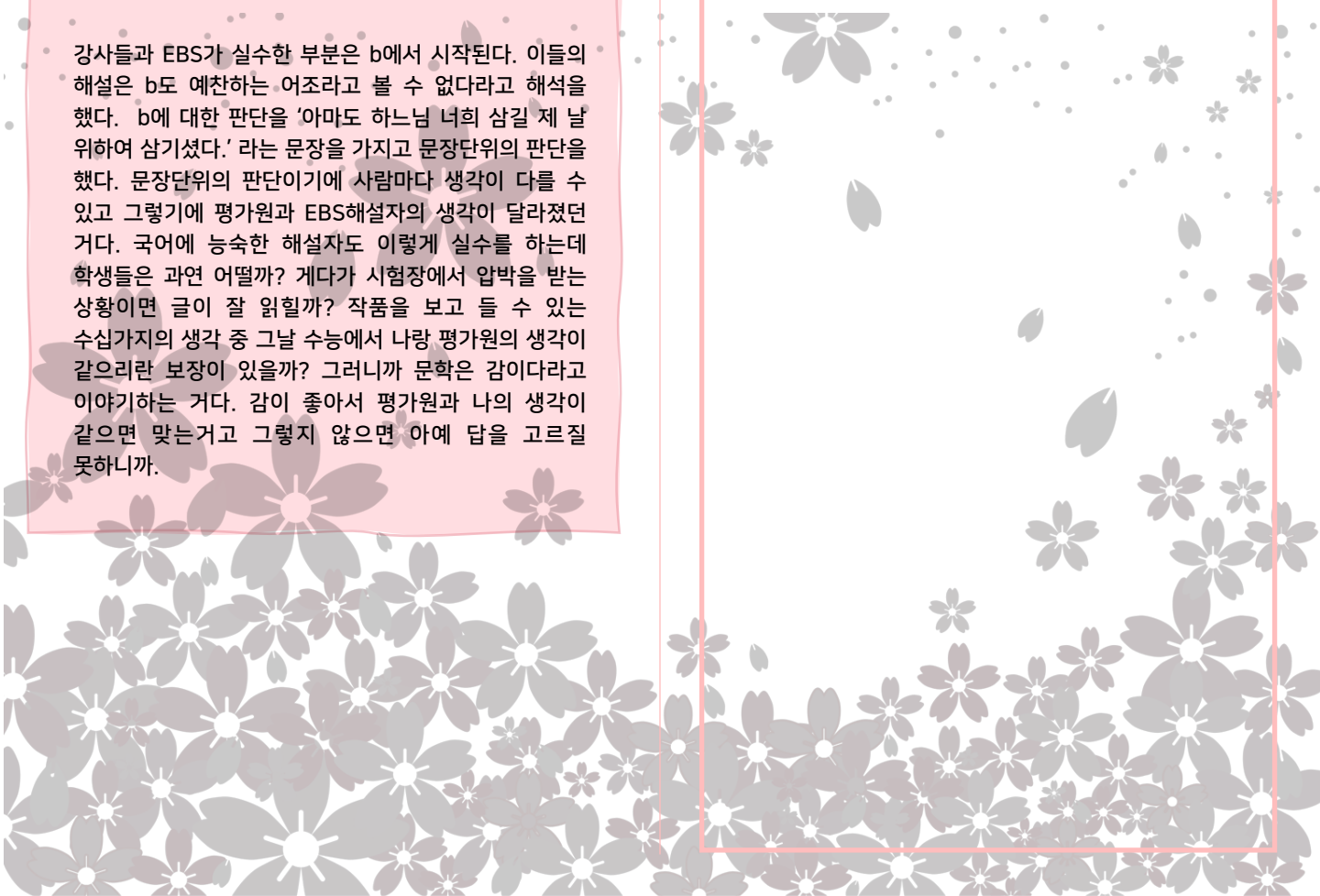
정답 ㉟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 문제는 평가원이 유일하게 직접 해설을 써 놓은 지문이다. 하지만 이 지문의 5번선지가 생각보다 논란이 되었는데 일부 강사들의 해설강의의 설명, EBS해설지와 평가원의 해설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용중심위주의 판단을 하다 보면 이렇게 평가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생긴다. 왜냐하면 각자의 주관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BS해설에 대한 고민

강사들과 EBS가 실수한 부분은 b에서 시작된다. 이들의 해설은 b도 예찬하는 어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다. b에 대한 판단을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문장단위의 판단을 했다. 문장단위의 판단이기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에 평가원과 EBS해설자의 생각이 달라졌던 거다. 국어에 능숙한 해설자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학생들은 과연 어떨까? 게다가 시험장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면 글이 잘 읽힐까? 작품을 보고 들 수 있는 수십가지의 생각 중 그날 수능에서 나랑 평가원의 생각이 같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그러니까 문학은 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감이 좋아서 평가원과 나의 생각이 같으면 맞는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답을 고르질 못하니까.



2-1. 그냥 읽고 풀기, 정서잡고 공감하기는 수능 문학이 아니다.

평가원의 해설

문학 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원리

- 이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고전시가 작품에서 형상화되는 화자의 말과 행위, 태도의 양상을 인식하고, 이를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의 특징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항은 고전시가 작품 두 편의 특정 부분을 [A], [B]로 초점화하여 해당 부분에서 확인되는 화자의 형상화 방식과 그 효과, 의미 등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가)의 [A]에서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늘'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하늘'은 화자에게 빈천한 운명을 부여하여 수용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체념의 어조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나)의 [B]에서도 초월적 존재인 '하느님'을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내적 맥락에서 '하느님'은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들어낸 존재로서, 화자는 이와 같은 '하느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예찬하는 모습을 보인다. [B]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A]에서 확인되는 화자의 말들을 '예찬하는 어조'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A]와 [B] 모두 화자가 대상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다양한 화자들의 특징과 그 효과, 의미 등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객관화는 '단어'에서 시작한다

이 지문에 적용을 해보자면 5번선지의 사실은 "하늘" "하느님"이고 주관은 "예찬하는 어조"다. 즉 출제자인 나는 하늘과 하느님을 보고 예찬하는 어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라고 물어본거다. 우선 "하늘"의 주변으로 가면 "빈천"과 "궁"이란 단어가 있다. 각각은 가난함에 대한 단어다. 즉 예찬이라는 긍정적인 단어와 정반대되는 "단어"다 그래서 A는 예찬이라고 볼 수 없다. B는 "하느님"주변부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즉 주관인 예찬이란 단어와 "날 위하여"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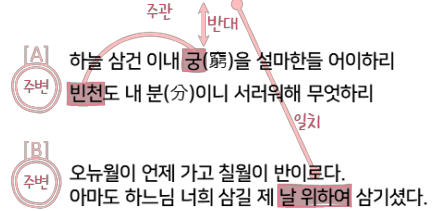
주관의 객관화. 평가원의 판단방식

이제부터 평가원에 기반한 나의 풀이를 보여주겠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원은 절대 문장단위 글 단위 판단을 시키지 않는다. 단어가 아닌 문장 단위의 판단이 되어버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즉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평가원은 단어 위주의 판단을 시킨다 선지는 크게 사실+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지문에 나온 이 표현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 출제자인 나는 이 표현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거다.

그럼 우린 적절한 선지일 경우 내용위주의 판단이 아니라 그 사실의 주변으로 간다. 만약 주변에 선지의 주관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선지는 적절하다.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그 주변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선지의 주관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예 없으면 된다

판단방식

⑤[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내 방식은 평가원과 일치한다

A에선 "빈천한 운명을 부여하고 수용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존재로서 표현했기에 이는 체념적 어조다. 그래서 예찬적어조가 아니라고 해설했다. 즉 판단의 근거가 "빈천"이라는 단어인거다.

B에선 하느님은 화자를 위해 면화와 벼를 만들어낸 존재. 즉 판단의 근거가 "날 위하여"라는 단어다. 평가원은 이렇게 단어위주로 선지를 판단시킨다. 그래야만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이의제기를 걸었고 평가원이 문장위주의 판단을 냈다면 어..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그러나 선지의 제작과정에서 답의 근거를 단어로써 설계했다면 주관이 개입될 여지. 이의제기의 여지가 사라진다. "자 여기봐 이 단어 선지의 말과 상응하잖아 혹은 반대잖아. 라고 답변하면 된다. 그래서 내용 중심으로 공감하고 정서에 반응하고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다. 평가원은 철저하게 객관화를 시킬테니까.

핵심

평가원은 문장위주, 글위주의 판단이 아니라 '단어'위주의 판단을 시킨다.

적절 사실주변부에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 존재

적절X 사실부분의 주변부에 주관과 바뀌질 수 있는 '단어' 존재 사실주변부에 주관을 정당화시킬 단어 X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①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건디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보기문제는 누군가에게겐 너무나도 쉽다.

문학에서 보기문제는 대부분이 3점문제. 즉 킬러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보기문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난이도가 가장 낮다. 보기문제란 출제자가 작품을 보고 나는 이렇게 읽었으니 너도 이렇게 읽어봐~라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틀에 맞춰 문학에 나온 여러가지 표현들을 그 기준에 맞춰 사고해보라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배운 중요한 특징, 주관의 객관화를 이용해야 한다.

시에서 나온 표현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기라는 하나의 주제성 아래에 놓이게 되면 시에 나오는 모든 문장과 단어 표현들은 반드시 그 주제성 하나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표현에서 사람마다의 해석이 다르기에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100%일치했을 때 우린 지문으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당연히 이 표현은 이 주제성을 표현해야만 해! 라고 선지에서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을테고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정반대라면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는 100%틀린 선지일거다. 혹은 선지의 주관이 보기의 주제성과 비슷하나 엄밀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지문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거다. 이를 토대로 선지를 구분해보자. 이걸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1번선지는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선지만 보고 바로 정당화가 되는 선지다. 우린 평가원이 1번선지의 형태로 봤을 때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지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선지를 지문으로 돌아가서 판단하는 순간 주관이 개입되고 판단이 오래 걸린다.

2번선지는 선지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고 지문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선지다. 지문으로 돌아갔을 때 글 단위 문장 단위의 판단이 아닌 사실의 주변부에 가서 적절한 선지면 주관과 바뀌질 수 있는, 일치하는 단어가 존재하며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땐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아예 그 단어가 없으면 된다.

1번선지 선지O 지문X 보기 주제성에 의한 판단으로 간단화

2번선지 선지O 지문O 체계화된 판단 방식으로 단어 위주의 판단



사실의 주변부에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존재



사실의 주변부에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존재

사실의 주변부에 주관을 정당화시키는 단어없음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①(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정당화**
주제성과 일치

보기의 주제성이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이니 시의 모든 대상과 단어들은 이 주제성을 표현해야 한다. 선지의 사실부분에 이를 나타내 줄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단어는 이 주제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게 객관성의 확보니까. "같이 걷는다"라는 표현은 주제성을 떼 놓고 봤을 땐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자연과의 조화도 될 수 있고 친구와의 우정일 수도 있고 수십가지 수백가지의 각기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주제성이란 맥락 아래 들어오면 반드시 이 표현은 사물과 교감이란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 이 선지는 선지만 보고 바로 지을 수 있는 1번선지다.

②(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정당화** 주제성과 일치

2번도 마찬가지로. 삶의 여정이란 주관은 주제성과 치한다. 그러므로 앞에 사실부분에 이를 정당화시켜줄 단어만 있으면 100%맞는 선지다. "어느 날"에 이르는 여정이란 말은 맥락을 떼어 놓고 보면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주제성 아래에선 반드시 삶의 여정을 드러내야만 한다

2번 선지에 대한 확립

보기에선 이상 세계의 하늘을 지향하는 글이다. 그런데 선지에선 이상세계의 "완전함"에 대한 글이다. 이상세계의 지향이란 글을 쓸 때 이상세계의 완점함에 대해 지향을 할 수도 있고 이상세계의 어떤 다른 점을 지향할 수도 있다. 즉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서브 주제다. 그러니 사실의 주변으로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다. 이상세계가 곧 완전함이 아닌가요? 그건 너의 주관이고 이상세계의 완전함이란 워딩이 없으니 평가원은 필히 가서 확인을 시켜보도록 유도한다.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너를 지켜 ~~네 이웃이~~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실전에서

주변이라고 함은 마지막 너를 맞아 줄~부터 단어위주로 보면 된다.

너를/맞아줄/ 검은 흙/ 먼 곳 /따로이 있느냐?/

여기에 완전함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없다. 절대 문장 통으로 보면서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나는/오직/너를 지켜/ 네 이웃이/되고 싶을 뿐/

여기도 없다.

그곳은/아름다운/별과/나의 사랑하는 창/열린 길

여기도 완전함에 대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없다. 그러니 주변에 가 봤더니 선지의 주관이 없다.

EBS 정답해설 : (가)에서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EBS해설이 막막한 이유

EBS해설지나 "그림그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수험생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가?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저히 몇 번 다시 읽어봐도 안되는데 그럼 배경지식이 있어야하나 시를 미리 공부해야 하나, 이런 사고로 빠지게 된다. 그럼 더 최악으로 빠지게 되는거다.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 4번 선지에 대한 확립

(나)는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이 보기에 나와있으니 선지의 주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마당은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선지의 사실부분에 호수가 있으니 1번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가)는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이라는 워딩이 보기에 없다. 그러므로 지문에 나올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서브주제다. 그러니 2번선지처럼 판단하자

④(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선지의 주관과 일치

지문 (가)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가)의 주변부에 아름다움이란 워딩이 그대로 적혀있다.

정당화

⑤(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꽃이 '못 건너게 향스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보기주제성

정당화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잡디다.”

듣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휙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말야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어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야? 엠병할 자식, ㉠ 내가 엠피¹한테 말 한따미둔,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중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따미에, 죽을 늠이 살아나구, 살 늠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보라……. 증중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중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취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B]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개짜
양말 오십 타
정중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였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뿔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D]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늠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 하였다.**

[E]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술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 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표척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프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였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면 코빼몰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네, 자네가…….”

“허, 살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는 ㉣ **내 집으루 잡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였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흰허 트여 가지고, 말도 체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직 저라고 무덤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였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미군 현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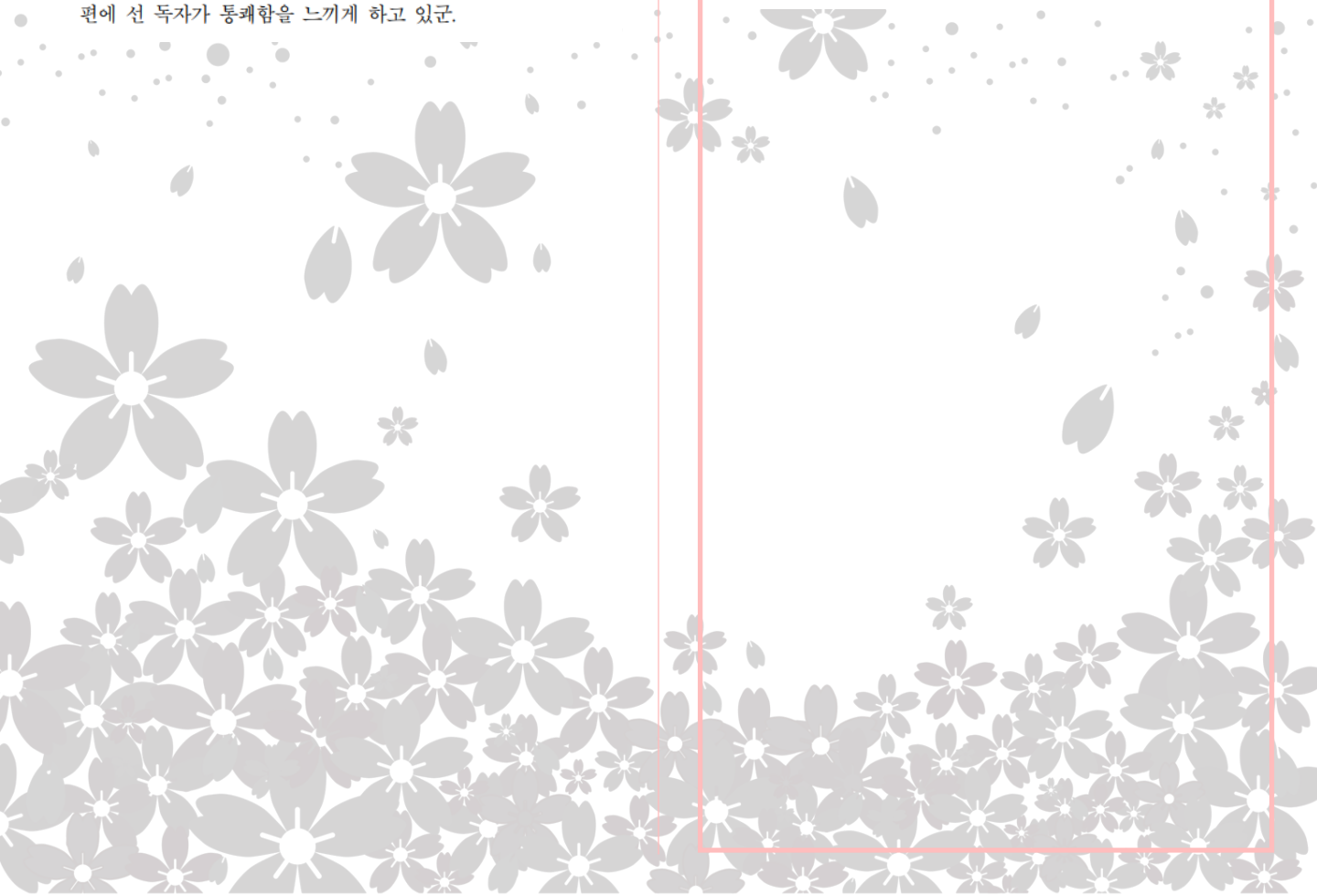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31.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진작부터 버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 ① [A]: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 ② [B]: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 ③ [C]: ‘있었더라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31번

문제분석

소설도 똑같다. 주관적인 소설을 보기를 통해 객관화 시킨거다. 그러니 시와 똑같은 맥락으로 1번선지와 2번선지를 잘 구분하며 선지판단을 깔끔하게 해보자.

1번 선지 판단과정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는건 보기의 주제성과 완전하게 일치한다. 그러니 유일한 판단과정은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과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했나뿐이다. 비판적으로 봤는지를 고민했다면 판단을 잘못한거다.

① [A] :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 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음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쉽게 판단가능!

2번 선지 판단과정

굉장히 중요한 선지다. 평가원이 얼마나 보기를 통한 객관화를 중요시하고 그를 통한 판단을 어떻게 시키는지 매우 잘 드러내는 선지다. 실제로 2번선지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보기에선 세부항목을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한다고 써냈다. 즉 이 지문에서 항목을 나열하면 무조건 장면의 분위기가 고조되어야만 한다. 그러니 판단과정은 항목 나열만 찾으면 된다.

②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음

B에서 직접적으로 들뜬 분위기를 언급하는 부분이 없지만 세부 항목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고조된 분위기여야만 한다. 그래서 어려웠던거다. 이런 판단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글의 내용만을 보고 풀기때문에 명확하게 없는 단어와 근거에 힘들었겠지

3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에 여러 인물로 초점화는 나와있다. 그러니 이게 군중의 시선이지만 확인하면 된다.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시키면 당연히 군중의 입장에 서게 되겠지.

지문 (주변)

XX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지문 (C)

이렇게 있었더라.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였다.

같은 상황

정당화

③ [C] : '있었더라'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음.

B에서 군중이 집을 습격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있었더라~라고 써냈으니 이는 군중의 시선일거다.

정답⑤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4번 선지 판단과정

3번과 마찬가지로 동네 사람의 시선인지 확인하고 뒤에 주관을 판단해주면된다.

지문 (C)

일번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외 늙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정당화

④ [D]: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동네사람한테~ 거만하게 굴고라는 말에서 동네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을. 그리고 D의 내용으로 백주사의 악행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음을 드러낸다.

5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은 여러인들의 시선을 초점화했다고 나온다. 그런데 5번선지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한 인물의 시점만을 담고 있다고 나와있다. 즉 보기와 반대되는 선지다. 이렇게 보기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선지는 지문에 어떤 말이 나오던 간에 적절할 수 없는 선지다.

보기

'진작부터 버려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보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정당화

⑤ [E]: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지문으로 돌아가서 이게 백 주사의 초점인지 동네사람들의 초점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간낭비이고 주관개입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 보기의 주제성과 반대되니까 "이 선지는 적절치 않아!"라고 선지만 보고 바로 답을 찍었어야 베스트다.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밭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된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에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 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3. (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야'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풀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32번

문제분석

표현상의 특징문제는 여러가지 특징이 있다. 우리 문제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 선지가 자주 반복된다

→ 선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기출에서 이 특징을 물어봤을 때 이정도면 맞다라고 봤어~처럼 표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깔끔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2. 표현을 '찾는'문제이다 보니 찾기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와 같이 판단의 유효리가 생긴다.

→ 판단이 유리한 선지 위주로 보고 불리한 선지는 나중에 미룬다.

유효리 기준

판단과정이 하나인 것 VS 판단과정이 두 개인 것 찾기 쉬운 표현 VS 찾기 어려운 표현

3. 결국은 가장 적절한 표현은 보기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낸 표현.

→ 시의 표현은 보기의 주제 즉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 그 표현에 대해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으면 열에 아홉은 보기의주제성과 관련이 있다.

4. 결국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4개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지문과 반대되는 선지를 낼 수도 있지만 표현이 없는 경우를 많이 낸다

→ 표현이 없는 걸 선지로 내면 없는 걸 찾고 있으니 반대되는 선지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선지에 비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

→ 그러니 판단과정이 유리한 선지 위주로 선지를축약시키는게 중요하다.

1번 선지 판단의 유효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나타내진 않는다. 그러니 판단과정이 두개다.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가 있는가?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나타내는가? 판단과정이 두개라 판단이 불리한 선지다. 그냥 넘어가라

①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여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

>> 표현이 없는걸 찾으려고 하면 괜히 이상한 주관이 들어가서 없는 표현을 정당화시키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2번 선지 판단의 유효리

자연물에 빗댄다고 해서 움직임은 나타내지 감정을 드러내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판단과정이 두개다. 자연물에 빗대었냐?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냈냐?

②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 자연물에 빗대어/ 섬으로 가자 =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3번 선지 판단과정

색채어를 활용한다고 해서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판단과정이 두개다. 색채어를 활용했는가?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냈는가?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비취빛 하늘', '눈빛 파도' 등을 통해 색채어를 활용했다. 반면 (나)는 색채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색채어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이미 틀린 선지이다.

From기출

색채어의 활용에 대한 판단은 말 그대로 색이 표현된 단어 (= 색채어)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2018학년도 6월 조지훈 「고풍 의상」)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 4번 선지 판단과정

화자가 사용하는 시어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므로 하강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지 유무만 파악하면 된다.

(나)는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이 보기에 나와있으니 선지의 주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마당은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선지의 사실부분에 호수가 있으니 1번선지로 판단할 수 있다.

(가)는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이라는 워딩이 보기에 없다. 그러므로 지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서브주제다. 그러니 2번선지처럼 판단하자

④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가)는 '무너지는', '발 아래 깔리는', '나려앉은' 등의 시어를 통해 하강적 이미지를 정당화시킬 수 있고, (나)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강적 이미지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 (나) 공통으로 적절히 설명한 정답이다.

! From기출

하강적 이미지 또한 말 그대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표현의 시어들이 있다면 하강적 이미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 덧붙여 상승적 이미지라면 그 반대의 의미겠지.
- 성긴 빗방울 파초 앞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

(2014학년도 수능 B 조지훈- 「파초우(色蒸雨)」)

+ 각주로 '후두기는'의 뜻을 '후두룩 떨어지는'이라고 제시해줬다. 여기서 또 언어갈 점은 평가원은 아무런 의미 없이 각주를 주지 않는다. 각주를 줬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중요하게 쓰이니 필히 참고해 달라는 의미이다.

📍 5번 선지 판단과정

화자가 사용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은 모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 선지의 판단과정은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지에 대한 유무 하나이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일단 (가)와 (나)에서 모두 시의 표면에 청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미 이것으로 틀린 선지이지만 더 자세히 들어 가보자면, (가)에서는 '나려앉은 섬으로 가자'의 표현이 말을 건네는 투라고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표현 방식이 화자의 내면을 털어놓는 독백적 어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틀린 선지이다.

! From기출

<FROM 기출> 표면에 드러나는 청자는 청자를 호명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다음의 기출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자.

- 산(山)들, 산(山)들,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默)이 흠뻑 지라함죽 하매,
산(山)이여! (2017학년도 6월 박두진- 「향현(香峴)」)
-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2017학년도 6월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33번

문제분석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다. 보기문제와 결을 같이한다. 적절한 선지면 주변부에 선지의 주관과 바뀔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적절치 않은 선지면 그 단어가 없거나 반대되는 단어가 있다.

정당화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 열렬히 살리라.

정당화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선지 자체로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

'하나씩' = 개별적존재의 고유성

주변

1. 지금까지 살아온
2. 부끄러워 지고

주변 1과 일치

주변 2와 일치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자신의 삶 전반 = 지금까지 살아온
성찰 = 부끄러워지고

주변

굳어

주변과 일치

정당화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주변 '뛰어내리고 싶다' 주변과 일치

부정적 상황 = 굳어 / 지속 = 날로 /
벗어나려는 절박감 = 뛰어내리고 싶다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주변 ~처럼 느껴질 때

반대

또한 = 동질성 / ~처럼 느껴질 때와 차별성은 반대.
동질성임.

정답⑤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34번

📍 보기문제공략

보기는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써 시의 모든 표현과 단어들은 보기의 주관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를 이용해서 1번선지와 2번선지를 구분했고 이를 통해 빠른 판단을 가져가야 한다.

📍 1번 선지 판단과정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이란 문장은 보기에 직접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지 않으나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반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지의 사실부분을 먼저 확인해 정당화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되면 배운대로 사실의 주변부로 가서 판단하자.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정당화
주제성과 일치

'초라한 경력'이란 단어가 변변치 않은 경험이란 주관을 완벽하게 정당화 시킨다. 그러므로 선지 만 보고 바로 판단이 가능한 1번선지다.

📍 2번 선지 판단과정

이 선지를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선지가 굉장히 많고 정답선지가 될 때가 매우 많다.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완벽하게 와닿을 거다.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란 주관은 보기와 충돌하진 않으나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는거랑 결핍을 끊는게 똑같은 말이라고? 결핍된 상황을 끊어내며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상황을 회피하면서 벗어날 수도 있고.. 결핍된 상황을 벗어난다는 큰 주제성 아래 모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서브 주제들이다. 보기에 서 만약 결핍된 상황을 끊어내며 벗어나려고 했다고 서술했다면 보기의 주제성이 그대로 써져 있으니 무조건 이 시의 모든 표현은 결핍을 끊어내려고 하는거다. 그런데 그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으니 우린 이 내용이 맞는지 사실의 주변으로 확인하러 가야한다.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경우 주변부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아예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없으면 된다고 했다. 주변이라고 하면 마지막 연 전체가 될거다. 하나씩 확인해보면 불꽃이 연륜을 끊는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절대 마지막 연 3문장 전체를 보고 애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런 판단이 되면 안된다.

📍 3번 선지 판단과정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한다 =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 발견 / 보기의 주제성이 일치하니 앞에 사실 부분을 확인한다.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보기의 주제성과 일치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4번 선지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이 일치한다. 앞에 사실부분에 그를 나타내 줄 단어만 확인하자.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솔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보기의 주제성과 일치

3번과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 뭐를 하고 싶었던지.. 이런 모든 시의 표현들은 전부 보기의 주제성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1번선지.

2-2 선지의 단순화. 보기의 주제성을 통한 1번선지와 2번선지

📍 5번 선지 판단과정

선지의 주관과 보기의 주제성이 일치한다. 앞에 사실부분에 그를 나타내 줄 단어만 확인 하자(나) 선지의 주관이 보기에 직접적으로 없다. 그러니 주변으로 가서 확인하자. (가)

주변 육지에 두다 → 정당화

㉮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이 시에서 나온 모든 공간은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이어야만 한다. 그러니 버스도 그런 공간 이겠지. 반면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둔다는 내용은 보기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없으니 가서 확인하자. 주변으로 갔더니 '초라한 경력'='지나간 시간/ '육지에 두다'='막아 둔다'와 같이 주변부의 단어가 선지의 주관과 정당화된다.



2-3. 기출은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것이다.

(나)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때, [A]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패역의 골짜기에서
 서로에게 기대ن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썩어 갈수록 [B]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C]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D]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여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E]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F]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

33. [A]~[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2-3. 기출은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것이다.

문제분석

위의 지문은 최근 수능의 현대사다. 기출분석을 들어가기 전 문제 구성을 잘 살펴보자. 생각해보면 34번의 보기문제나 31번의 표현상의 특징은 지문의 종류와 상관없이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즉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허들 자체가 낮다. 보기 문제 같은 경우 그냥 작품을 보고 출제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기준을 주고 그에 맞춰 선지를 구성하면 되고 표현상의 특징은 지문에 있는 표현 몇개 뽑아내면 끝이다. 이렇게 문제 구성의 허들이 낮아 어느 지문에서나 출현할 수 있는 문제를 일반문제 라고 하겠다. 우리가 집중 분석해야 할건 32번과 33번과 같은 특수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매번 나오지 않는다. 즉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허들 자체가 높다. 그렇다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조건과 풀릴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더욱이 명확할거다. 우린 이걸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특수문제는 시험장에서 너의 발목을 잡을 문제일거다. 그러니 반드시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가라. 시험장에서 누군가는 아 이 문제는 이렇 게 난이도 조절을 하고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해!라고 하는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풀어내고 풀면서 힘겨워 한다. 누가 더 시험을 잘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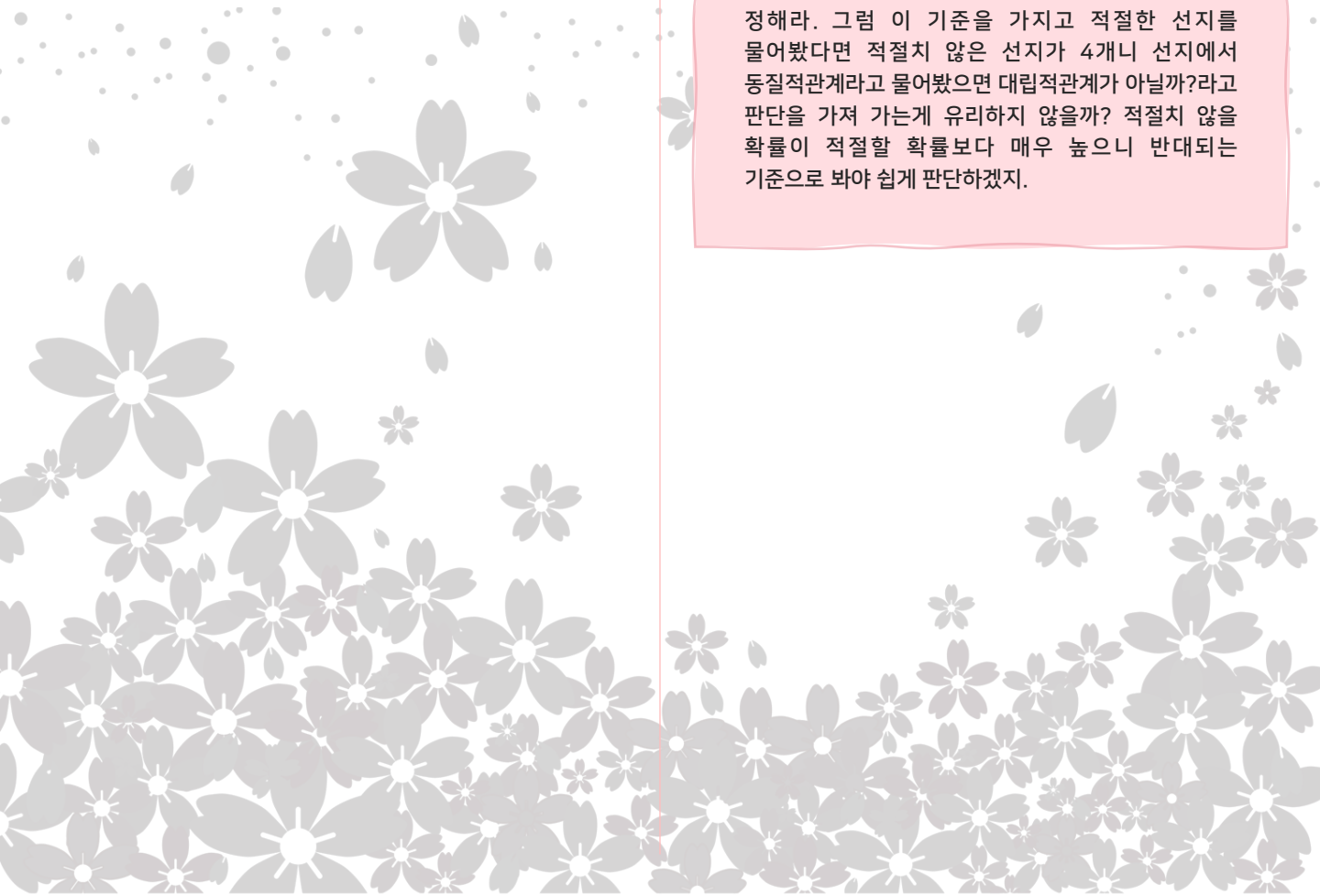
대표적인 예시인 33번을 분석해보자.

문제의도

사실 AB로 단락치고 물어보는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각각의 단락을 따로 물어봤었다. 그래서 각각의 단락별로 끊고 판단하면 판단이 유리했었는데 이번 수능에선 각각의 단락들의 관계를 물어보면서 판단과정이 늘어났다. 즉 따로 따로 판단해서 지을 수 있는게 아닌 각각을 판단하고 그 두 단락의 연결성까지 생각해야만 한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단락간 서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선지를 다양하게 구성하며 물어볼 수 있을까? 그렇다. 이 문제의 출현 조건은 시의 상황이 변화하는 시에서 주로 쓰인다. (긍정적>>부정적 / 부정적>>긍정적)

대비책

그렇다면 선지에서 물어볼 수 있는건 동질적 관계(상황이 변하기전, 같은 특성을 가진)와 대립적 관계(변하기 전과 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를 비교하며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선지를 크게 두개로 나누고 글에서 상황이 변화된 지점을 명확하게 정해라.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선지를 물어봤다면 적절치 않은 선지가 4개니 선지에서 동질적관계라고 물어봤으면 대립적관계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가져 가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적절치 않을 확률이 적절할 확률보다 매우 높으니 반대되는 기준으로 봐야 쉽게 판단하겠지.



2-3. 기출은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것이다.

33번

문제분석

지문에서 끊어지는 지점을 명확하게 잡아보자. C의 '이윽고'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상황이 변화한다. 즉 AB/CDEF로 나뉜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선지를 봐보자.

변화전 동일한 상황

①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 가는 모습은, [B]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어차피 물어볼 기준은 동질이나 대립이냐다. 선지의 단어를 둘 중 하나로 바꾸면 순환적 관계라는 말은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 대립적 관계를 물어봤다. 그런데 AB는 상황이 변하기 전으로 동질적 관계를 의미한다.

②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C]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른 상황, 인과적 순서 또한X

위와 마찬가지로 순차적관계라는 말은 상황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대립적 관계를 물어봤는데 B→C로 변한 대립적관계다. 이게 왜 답인지 알겠지? 가장 적절한거잖아.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상황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2번이 답일 수 밖에 없지. 이렇게 대비책 세우고 봤으면 이 문제 5초안에 푼다.

③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같은 상황

CD는 상황이 변화된 후로 동질적관계다. 이러니까 너무쉽지?

④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4번선지 같은 경우 미래형으로 출제 될 수 있는 문제다. 상황의 변화를 다루는 시에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나누는게 기본적인 출제 스탠스였다면 변화의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킬러의 형태로 출현할 수 있다. 이 문제같은 경우 변화의 원인이 변화의 기점인 C만 인과적 관계의 선지로 역일 수 있다. 그래서 변화의 기점을 지문에서 미리 잡고 가라는거다.

⑤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 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한다.

5번이 약간 이 문제의 발전여지를 보여주는 선지다. 1~4번은 상황 변화 전후로 명확하게 나뉘었다면 5번은 마지막에서 일부 표현으로 대립을 시켜놨다. 그러나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일수록 명확하게 주변부에 정당화단어를 준다. '뎛을 길 없는',=대립적관계

정답②



2-3. 기출은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것이다.

(가)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A]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B]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

23.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2-3. 기출은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것이다.

23번

문제분석

한번 선지들을 꼭 봐 보자. A와 B가 분절되어 있지 않고 2번과 5번을 제외하고 선지 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 즉 A와 B의 동질적관계나 대립적관계냐를 기준으로 보자. 이 문제는 단락을 앞 뒤로 나눠서 상대적으로 쉽게 변화 전과 후를 A와 B각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수능문제에선 단락을 여러개 주면서 변화 지점을 다양화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발전시켰다. 다만 이 문제의 시사점은 보기가 없는 내용문제라는거다. 우리 문학작품을 출제자 와 똑같은 관점으로 읽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보기라는 기준이 없는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는게 기출분석이다. 보기가 없으면 우리 결국 선지에 의존해야 한다. 그래서 발문이 적절치 않은 선지를 고르라는 거다. 적절한 선지를 4개 배치하면서 선지를 통해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간 관계를 보며 내용을 잡는게 보기 없는 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다. 다만 이 문제는 정답 판단을 쉽게 해서 정답률은 높았지만 나머지 선지들에 대한 완벽한 정당화가 힘들었을 거다. 이 문제가 나왔으면 다음엔 이 원리를 이용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대비책을 세우고 가자.

① [A]의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B]의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보기도 없어 기준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A의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고 이게 B에서 기다림의 대상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적절한 선지가 4개임을 기억하자. 그러니 이 선지를 그냥 넘기고 다음 선지와 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적절한 선지는 출제자 자신의 기준으로 시를 바라본 것이니 적절한 선지들을 잘 엮으면 하나의 기준이 완성 된다.

② [A]의 '못 박힌 듯' 기댄 자세는 과거의 고통을, [B]의 '옷자락을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1번선지와 비교해서 1번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지 아니면 충돌하는지를 봐보자. A가 과거의 고통이고 B가 미래에 대한 기대라면 1번선지의 말처럼 B에서 기다리는 대상과 A는 각각 과거와 미래로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 두 선지는 적절한 선지이며 이 시에 대한 기준을 과거에 대한 고통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꿈꾸는 시라고 주제를 잡을 수 있다.

③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은 '이 아침' 이후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3번도 보일거다. 1번과 2번과 같은 결로 과거의 고통(부정적 상황)이 미래에 대한 기대 (긍정적 상황)으로 바뀐다는 같은 내용을 잡고 있다. 그러니 3번선지도 정답이 아닐거다.

④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래 떨던 셋별'과 '향기로운 싸릿순'은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문

선지 주관과 반대

새들 즐거이 구름 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상대적으로 정답선지인 4번의 판단을 너무 쉽게 줬다. 우리가 판단해야 할 선지의 주관은 '화자의 지향점'이다. 그러나 앞에 있는 사실만론 이게 지향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그러니 2번선지처럼 사실의 주변부로 가자. 사양하라 = 지향점의 반대이니 적절치 않은 선지가 되는거다.

⑤ [A]의 '간구'는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바라는 기원을,[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5번선지도 123번 선지와 같은 결로 이야기하고 있다. 선지를 통해 잡은 기준으로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